ë³´ê³

1972ë…„ 3ì›” 10ì¼ ë…¸ì¼ë¯¼ì£¼ê³µí™”êµ ëŒ€ì‚¬ê´€ì—ì„œ ì´ë£¨ì–´ì§„ ì†Œë ¨ ëŒ€ì‚¬ê´€ 1ë“± ì„œê¸°ê´€ ì¿ ë¥´ë°”í† í”„ ë™ì§€ì™€ì˜ ë©´ë‹´ ê¸°ë¡

ë‹¤ìŒì˜ ì§ˆë¬¸ì—ì„œ ëŒ€í•´ ìˆ˜ê²¬ êµí™˜ì´ ì§„í–‰ë˜ì—ˆìŒ:

ë‹‰ìŠ¨ì˜ ë² ì´ì§• ë°©ë¬¸ê³¼ ì¤‘í™”ì¸ë¯¼ê³µí™”êµê³¼ ë¯¸êµ ì‚¬ì´ì˜ ê´€ê³„ ì •ìƒí™” ì¶”ì§„ì— ëŒ€í•œ ë¶í•œ(DPRK)ì˜ ìž…ìž¥

ì„œë©´ ìƒì— ì˜í•˜ë©´, ì¿ ë¥´ë°”í† í”„ ë™ì§€ëŠ” ìµœê·¼ ì¤‘êµê³¼ ë¯¸êµê°„ì˜ [ìƒí•˜ì´] ì½”ë®¤ë‹ˆì¼€ì— í•œêµ ë¬¸ì œ ê´€ë ¨ ë‚´ìš©ì´ ë¹ ì¡Œë‹¤ëŠ” ì ì— ëŒ€í•´ ë¶í•œ ì§€ë„ë¶€ íŠ¹ížˆ ë§Œì¡±í•˜ê³ ìžˆìŒ, ê·¸ë“¤ì€ ë°˜ì‚¬ì ìœ¼ë¡œ í•œ ì˜ ìž…ë‹¤ê³ ì£¼ìž¥í•˜ê³ ë‹¤ ë¶í•œ ì§€ë„ë¶€ëŠ” ë¶í•œ ì˜ 8ë„ ì›ì¹™ê³¼ ì ›ì¡°í[1]ì˜ í•´ì²´ë¥¼ ìš”êµ¬í•œ ê·¸ë“¤ì˜ ìš”ì²ì´ ì§€ì¼œì¡Œë‹¤ê³ ë³´ì•˜ë‹¤ ì´ì— ë§Œì¡±ë¥¼ ëœ»í•œë‹¤. ë¶í•œ ì§€ë„ë¶€ëŠ” ì¤‘êµ ë¶í•œ ì— ëŒ€í•´ ê²¬ê³ í•œ ì§€ì§€ë¥¼ ìž…ìž¥ì„ í‘œëª…í–ˆë‹¤ê³ ìƒê°í•œë‹¤. ë¯¸êµì€ ë¬¸ì œ ë¶í•œ ì§€ë„ì˜ ë² ì´ì§• ì¸ë±ì‚¬, “ìš°í• ì˜ ì¤‘êµë¯¸êµ”ì˜ ë³´ì´ì—¬ì§€ ì§€ì§€ë¡œ ë°›ì•„ë“¤ì´ ê³ ìž˜ë‹¤ê³ ì´ì—ˆë‹¤. ìš°ë¦¬ ëŒ€ë‹´ìž ë‹‰ìŠ¨ì˜ ë² ì´ì§• ë°©ë¬¸ê¸°ê°„, ì¤‘, ë¶í•œ ì‚¬ì‹¤ 1971ë…„ 8ì›” 6ì¼ ê¹€ì¼ì„±ì˜ ì—°ì„¤ì—ì„œ ëª…ì‹œëœ ìž…ìž¥ì„ ìœ ì§€í–ˆë‹¤. ì´ ì „ì—ëŠ” ë‹‰ìŠ¨ì€ ë² ì´ì§•ì—ì„œ ìž¥ì œê°€ ì•ŠëŠ” ê³„ì— ëŒ€í•œ ì¶”ë¡ ìœ¼ë¡œ ì ìš©í•˜ê²Œ ë ê²ƒì´ë‹¤. ì´ì™€ ê°™ì€ ë¶í•œì˜ ìž…ìž¥ [1972ë…„ 1ì›”] [ì¼ë³¸ ìš”ë¯¸ìš°ë¦¬ ì‹ ë¬¸ì— ì‹¤ë¦° [ê¹€ì¼ì„±]ì˜ ì¸í„°ë·°ì—ì„œ, ë°˜ë³µë˜ì–´ ë‚˜íƒ€ë‚¬ê³ ìžˆë‹¤. ë‹‰ìŠ¨ì˜ ë°©ë¬¸ì€ ë¯¸êµ ëŒ€ì¤‘êµ ¹ì—ê²Œ ê°€í•´ì§„ ì™¸êµì ì••ë ¥ì˜ ê²°ê³¼ë¡œ í•´ì„ë˜ì—ˆë‹¤. ì´ëŸ° ë°©ë²•ìœ¼ë¡œ ë¶í•œì€ ì¤‘êµì˜ ì •ì±…ì„ ì§€ì§€í•˜ê³ ìŠ¤ëŒ€ì—ì„œ ë¶í•œ ì— ëŒ€í•œ ì§€ì›ì„ ë…¼í•˜ëŠ”ë° ë™ì˜í•œ ê²ƒì´ë‹¤.

ë¶í•œ ì§€ë„ë¶€ëŠ” ì‚¬ì‹¤ìƒ ì¤‘êµê³¼ ë¯¸êµ ê´€ê³„ë¥¼ ê°œì„ í•˜ê²Œ ëœ ê²°ê³¼ë¥¼ ë°›ì•„ë“¤ì´ê³ ìžˆìœ¼ë©°, ê·¸ë“¤ì˜ ì„¸ë¯¸ë‚˜ë“¤ë¡œ ì´ë¥¼ ê¸ì •í•˜ê³ ìžˆë‹¤. ê·¸ë“¤ì€ ë¯¸ì¼ì¼ì˜ ë…¸ì„ , ì¦‰ ì¼ë³¸ê³¼ ë¯¸êµì˜ ìž¬ë¬´ìž¥ì ë¬¸ì œ ìž¥ì„±ì˜ ê°ˆë“±ì— ëŒ€í•´ ...

ë¶í•œ ì§€ë„ë¶€ëŠ” ì¤‘êµì´ "ì‚¬íšŒì£¼ì˜ ë¶ëŒ€ ¥ìž”"ì— "ë°”ê¾¸ ì´ìƒ ...

[...]

ë³´ê³ ì‚¬í• ...

ë¶í•œ ì§€ë„ë¶€ëŠ” ...

ê¹€ì¼ì„±ì˜ ë² ì´ì§• ë°©ë¬¸ì€ ...

ë§Œë¶ ^ì¦^ë„¤ì‹œ ... ë™ì§€ì™€ì˜ í—¤ë‹´ ì™„ë£Œ

ì¿ ë¥´ë°”í† í”„ ë™ì§€ëŠ” ...

[ì†Œë ¨ ëŒ€ì‚¬ê´€ ...]

ì¿ ë¥´ë°”í† í”„ ë™ì§€ëŠ” ...

í—ˆë‹´ì—ì„œ ...

ì‹œë‹¹ìž¥ ...

ê³µì‚°ì£¼ì˜ ì„¸ê³„ì—ì„œ ...

ì‚œë©´ ì›ê³ ì— ì˜ê±±ì •ì—¬, ì¿ ë¥´ë§ˆíƒ” í”„ ë™ì§€ëŠ” ì•„ì§ ê°€ëŠ¥ì™€ ê°™ì€ ì˜ê²¬ì„ ë‚¸ê²¼ë‹¤:

1971ë…„ê³¼ 1972ë…„ 초 ì¡°ì‚¬ ë¡œëŠ”ë¡ì´ ë…„ë‹¹ì‹ ê°€ê³„ì˜ ì§€ì¶œì´ ì•½ê°„ ë¹¨ë¦¬ ì¦ê°€í•˜ê³ ìžˆìœ¼ë©°, ë‹¤ìŒ ì„¸ ê°€ì§€ ìš”ì¸ì´ ì´ëŸ¬í•œ ê²½í–¥ì„ ì„¤ëª…í•˜ëŠ” ë° ê°€ìž¥ ì¤‘ìš”í•œ ê²ƒìœ¼ë¡œ ë‚˜íƒ€ë‚¬ë‹¤. ì²«ì§¸, ì†Œë“ì´ ì¦ê°€í•¨ì— ë”°ë¼ ì‚¬ëžŒë“¤ì€ ë” ë§Žì€ ì„œë¹„ìŠ¤ë¥¼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서비스 가격이 상품 가격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였다. 셋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이 상품 부문에 비해 낮았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ì¡°ì‚¬ ê¸°ê°„ ë™ì•ˆ ì‚¬ëžŒë“¤ì€ ë¨¹ëŠ” 것, 주거, 교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늘렸다. 특히 의료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대부분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 반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ê·¸ë¦¬ê³ ì´ˆê¸° ì¡°ì‚¬ ê²°ê³¼ì— ë”°ë¥´ë©´ 서비스 부문의 상대가격 상승은 수요 측면에서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서비스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서비스 소비를 크게 줄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가 필수재적 성격을 띠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ì¡°ì‚¬ ë¡œëŠ” ì§€ë„ìž ê³µë¬´ì›ì˜ ì—í• ë˜ëŠ” 중요성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면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ì¡°ì‚¬ ê²°ê³¼ë¥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부문의 상대가격 상승은 수요 측면에서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이 상품 부문에 비해 낮았다. 셋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ì¡°ì‚¬ ê²°ê³¼ë¥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부문의 상대가격 상승은 수요 측면에서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이 상품 부문에 비해 낮았다. 셋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ì¡°ì‚¬ ê²°ê³¼ë¥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부문의 상대가격 상승은 수요 측면에서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이 상품 부문에 비해 낮았다. 셋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ì¡°ì‚¬ ê²°ê³¼ë¥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부문의 상대가격 상승은 수요 측면에서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이 상품 부문에 비해 낮았다. 셋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ì¡°ì‚¬ ê²°ê³¼ë¥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부문의 상대가격 상승은 수요 측면에서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이 상품 부문에 비해 낮았다. 셋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ì¡°ì‚¬ ê²°ê³¼ë¥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부문의 상대가격 상승은 수요 측면에서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이 상품 부문에 비해 낮았다. 셋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ì¡°ì‚¬ ê²°ê³¼ë¥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부문의 상대가격 상승은 수요 측면에서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이 상품 부문에 비해 낮았다. 셋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ì¡°ì‚¬ ê²°ê³¼ë¥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부문의 상대가격 상승은 수요 측면에서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이 상품 부문에 비해 낮았다. 셋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ì¡°ì‚¬ ë¡œëŠ”] ì¤‘ì•™ìœ„ì›íšŒì˜ [êµ 4ë¶€ë¶€ìž¥ì‚¬ ê²°ê³¼ì—ë„ ê²°ê³¼ì—ë„ ë¶ˆêµ¬í•˜ê³ ì¼ë¶€ ì¡°ì‚¬ ë¶„ì•¼ì—ì„œ ì¦ê°€ì„¸ê°€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ê²°ì¼ì‚±ì˜ ì´ë…ì„ ê°œë¡ì ìœ¼ë¡œ ì„¤ëª…í•˜ë©´ ë‹¤ìŒê³¼ 같다. 첫째, 서비스 부문의 상대가격 상승은 수요 측면에서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이 상품 부문에 비해 낮았다. 셋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ì´ìƒì˜ ì‚¬ì‹¤ë“¤ì„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부문의 상대가격 상승은 수요 측면에서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증가율이 상품 부문에 비해 낮았다. 셋째,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ìž¥ê³¼ ì •ï™•íž^ ì¼ì¹˜í•˜ëŠ” ë¶€ë¶„ì´ë‹¤.

ï™¸êµì—,œì˜ ì˜í–¥ë ¥ì„ ê°•í™”í•˜ê¸° ìœ„í•´ ì˜¨ë‹¨ì´ ì´ë£©í•œ ê·¸ê·¸ë³¼ ì‚¬ì„ ì„ „íŒŒí•˜ê³ ìžˆë‹¤. ì‚¬ëžŒë“¤ì´ ì§‘ë‹¨ì—ì„œ ë²—ì–´ë‚˜ì§€ ì•Šê¸° ìœ„í•´ì„œëŠ” ì‚¬íšŒì ê·œë²”ì„ ì§€ì¼œì•¼ í•œë‹¤. ë¶ì„œ ì‚¬íšŒì ê·œë²”ì„ ì§€í‚¤ê¸° ìœ„í•´ì„œëŠ” ì‚¬íšŒì ì œìž¬ê°€ 필요하다. 그러나 ì‚¬íšŒì ì œìž¬ëŠ” 개인의 ìžìœ ë¥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는 개인의 ìžìœ ë¥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ê¸°ì£¼ì´ ì£¼ê´€ì ì¸ ë¶ˆì•ˆê°ì— ì§€ë„ë¶ìž ì—†ì´ ê°œì¸ì˜ ìžìœ ë¥¼ 보장하기 위해 ê³µì ì¸ ê¸°ì£¼ì´ 필요하다는 ì£¼ìž¥ì´ ìžˆë‹¤. 그러나 ì´ëŸ¬í•œ 기준은 ë¬´ì—‡ì´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 따라서 사회는 개인의 ìžìœ ë¥¼ 보장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ë¶-ì¤‘ ê´€ê³„ê°€ ëŒ€ì¤‘ê³¼ ìœ¼ë¡œë œ ë…„ë¶€ëœ ë¶€ë¶„ì€ í”„ëžœìŠ¤ ì£¼êµìž¬ ì¤‘êµë©Œì¸ê°€ì´ 2ì›” 25ì¼ ë¶ì°¸ì„ ë¶ˆê°€ë¡œ ì•Œë ¤ì ¸ ìžˆë‹¤. ì´ 'ë§Œì˜ëŒ€' ì•™ê³¼ì˜ ë§Œë‚¨ì€ 1972ë…„ 2ì›” 29ì¼ ì „ê³¼ 같ìš©ì¸ ì£¼ì œë¡œ ì•½ 2ì‹œê°„ 동안 진행되었다. 회담 후 ê³µë™ 성명은 발표되지 않았으며, 양측은 각각 별도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4ì›” 15ì¼ ê¹€ì¼ì„±ì˜ 60ë²ˆì§¸ 생ì¼ì„ 맞아

ìš°ë¦¬ ëŒ€í™”ì˜ ëŒ€ìƒì—ê²Œ, ì¿ ë¥´ë“œ ë…ë¦½êµê°€ ì´ë…„ì—ì„œ ëŒ€ë¶„ì˜ ì‚¬ëžŒë“¤ì—ê²Œ ìžì—°ìŠ¤ëŸ½ê²Œ ëŒ€ë¶„ì˜ ì‚¬ëžŒë“¤ì—ê²Œ ìžì—°ìŠ¤ëŸ½ê²Œ ì‚¬ìš©ë˜ëŠ” 단어가 있다. ë‹¤ë¥¸ 언어로 번역하면 'attaché'ì, 프랑스어로 'ë©”ëª¨ì•„ë¥´'ì´ë‹¤.

ë©”ë¥´í… ë¶€ëŒ€ì¬

ì°¸ì°°

1x [ï™¸ë¬´ë¶€] ê·¹ë™ì•„ì‚œê³¼

1x ì¤‘ì•™ìœ„ì›íšŒ ì œ 4ë¶€

1x ZID [ï™¸ë¬´ë¶€ ì¤‘ì•™ì •ë³´ì„œë¹„ìŠ¤]

1x ëŒ€ì‚¬ê´€ ì•¼ê°„ ê·¼ë¬´ìž

[1] êµì—ì•¼ê°•ë¡†µí¼ì¼ë¶€íŒ¥ìœ¸ì›íšŒ